

제97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003. 3. 11

5 분 자 유 발 언

이 수 정 의 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7만 군민 여러분!

금년은 참여정부가 출범하는 첫해이면서 민선 3기 군정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새봄, 제9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것은 현재 농촌지역에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 노인문제에 대하여 다같이 짚어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 모두의 관심을 상기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UN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4%를 초과하면 「고령사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삼성 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2019년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14.4%에 달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우리 거창군은 2002년말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만 1,328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16.7%에 달하여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실정입니다. 또한 통계청의 2002년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의 절반 가까운 45.8%가 자녀와 같이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응답을 했다고 하며,

실제로 이 조사에서 노부모가 자녀와 같이 사는 비율은 4년 전 조사때의 54.6%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져 42.7%에 불과하

다 하니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노인 부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정작 따로 살 만한 자립여건을 갖춘 경우가 드물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더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부양대책은 선진국에 비하여 너무나 미약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로 인하여 2020년이면 100가구 중 22가구가 혼자사는 1인 가구이며, 1인 가구의 41%가 65세 이상 노인가구가 될 것이라고 하는 바, 핵가족이 보편적인 추세인 상황에서 노인 부양을 더 이상 전통적인 효도 사상에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형적인 농촌마을이 산재한 농촌 지역은 급속하게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나 정부의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들은 현실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민선 3기가 출범하면서 마을 경로당 운영비, 어버이날 행사 보조금, 노인 교통수당 등을 인상하여 준 것에 대하여는 주민 모두가 너무나도 고마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소요되는 경비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첫째, 농촌마을에서는 농한기인 11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의 마을회관에 전주민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난방비 지원이 고유가시대로 턱없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실에 맞게 지원되어 마을회관 활성화와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3년 1월 24일 농어촌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노인 교통비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개최되는 어버이날 행사의 보조금지원에 관하여는 의회 차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현실화를 촉구하였지만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장 현실화는 어려울 것이나, 매년 인상된 만큼 인상하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정부가 표방하는 지방분권화의 실천을 위해서 본의원이 제안한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대책들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성의를 보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